

창업경험 특성이 벤처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업력의 조절효과*

박상문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이미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의 중요한 인적자본으로서 후속 창업시 벤처창업기업의 운영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을 성공창업경험과 실패창업경험으로 구분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업력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업경험특성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공창업경험은 고용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패창업경험은 고용과 재무적 성과 모두에서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에 따른 조절효과는 실패창업경험에서는 정의 조절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성공창업경험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경험의 특성(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이후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이 늘어나면서 이전 창업경험의 효과는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단기적인 영향관계와 장기적인 영향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창업가의 창업경험의 효과가 경험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도 창업경험의 특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경험, 벤처창업기업, 성공경험, 실패경험, 성과

1. 서론

벤처창업기업의 창업과 성공에는 창업가의 특성이나 해당 제품시장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창업가의 여러 특성들은 벤처창업기업의 기회포착, 설립과정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기존 창업가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및 행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들어 창업이 일생에서 한번 있는 활동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쇄창업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전 창업경험 여부에 따라 창업경험이 있는 연쇄창업가(serial entrepreneur)와 처음 창업하는 최초창업가(novice entrepreneur)로 구분하고 이들간의 특성차이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Politis, 2008; Westhead & Wright, 1998; Westhead et al., 2005a; 2005b).

최근에는 과거 창업경험이 후속 벤처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자원조달, 기회추구 활동 및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은 창업관련 지식과 학습으로 인해 처음 창업하는 창업가들에 비해 창업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Delmar & Shane, 2006; MacMillan, 1986; Toft-Kehler, et al, 2014).

국내에서도 과거 창업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러 국가들에서는 실패한 창업가들의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 본 연구는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520170100). 본 연구는 2017년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고 발전시켜 작성함. 본 연구의 결과는 저자들의 소속기관인 강원대학교나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며 전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임. 본 논문에 대해 여러 유의한 의견을 주신 2017년 학술대회 참석자들과 논문심사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유의한 의견을 주신 세분의 익명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및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venture@kangwon.ac.kr

*** 공동저자,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mslee@kosbi.re.kr

· 투고일: 2019-06-07 · 수정일: 2019-08-11 · 게재확정일: 2019-08-26

지원효과들도 나타나고 있다(김형호·윤현덕, 2015).

과거 창업경험은 학습효과를 통해 후속 창업시, 창업기업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MacMillan, 1986). 창업경험으로부터 학습된 지식이나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들이 새롭게 설립된 벤처창업기업의 운영과정에 이전되거나 활용됨으로써 창업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기역량을 형성하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내의 실증 분석결과들은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연구에 따라서는 창업경험이 성과와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기도 하고(Stuart & Abetti, 1990; Eesley & Roberts, 2012; 김민수 외, 2010; 배영임, 2014), 창업경험과 성과간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기도 하며(Alsos & Carter, 2006; Tornikoski & Newbert, 2007),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Dencker, et al, 2009; Oe & Mitsuhashi, 2013; Westhead & Wright, 1998; 김인수·이택구, 2018; 이종건 외, 2014; 윤보현·박준병, 2007) 나타나기도 한다.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연구들이 창업경험의 특성을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로 구분하지 않고 성패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습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제하는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창업경험 유형내에서도 상이한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실패경험은 성과에 긍정적 영향관계를 보이기도 하고(Boso, et al, 2019), 업종을 변경한 경우 실패경험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Eggers & Song, 2015). 또한 창업경험은 성과와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어(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상황적 영향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경험 특성을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로 세분화하여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존연구들에서는 창업경험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을 성공과 실패경험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각각의 창업경험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들이 창업이후 기업창업의 사업경험과 조직화가 진행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창업기업 업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벤처창업기업 창업가들의 창업경험 특성은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둘째, 창업경험 특성과 성과간의 관계를 기업업력에 따른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창업가의 창업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들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부분으로 연구표본과 주요 변수들의 측정방법 및 분석방법들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의의,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2.1 창업경험에 대한 기존연구

벤처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하여 기회를 추구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창업가들은 창업준비과정이나 초기창업시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도전과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창업가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 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 초기에 중요한 인적자본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적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Reuber & Fisher, 1999; Politis, 2008)

벤처창업기업에 있어서 창업경험의 중요성으로 인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창업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경험 여부에 따른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특성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들은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에 따라 최초창업자(novice entrepreneur), 연쇄창업자(serial entrepreneur) 또는 여러 기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창업자(portfolio entrepreneur)로 구분하고 각각의 창업가 또는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 정보원천 활용, 기회인식과 탐색, 기회포착, 조직역량, 성과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Westhead & Wright, 1998; Westhead et al., 2005a; 2005b).

둘째,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Eesley & Roberts, 2012; Dencker et al., 2009). 창업경험 보유는 이전 창업과정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학습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직면하는 신생기업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필요 자원들을 적기 확보함으로써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들은 연구결과에 따라 긍정적 영향관계(Stuart & Abetti, 1990; Eesley & Roberts, 2012; 김민수 외, 2010; 배영임, 2014), 부정적 영향관계(Alsos & Carter, 2006; Tornikoski & Newbert, 2007) 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Dencker et al., 2009; Oe & Mitsuhashi, 2013; Westhead & Wright, 1998; 김인수·이택구, 2018; 이종건 외, 2014; 윤보현·박준병, 2007)과 같이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최근에는 창업경험의 상황적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Delmar & Shane, 2006; Zhang, 2018). 이들 연구들은 창업경험과 성과의 비선형적 관계나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창업경험이 성과나 자원확보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Zhang, 2018). 대표적으로는 창업가들은 학습곡선 효과에 따라 창업경험과 성과간에 U자형 영향관계가 존재하며 상황적 유사성이 높을 수록 성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관계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Toft-Kehler et al., 2014).

넷째, 창업경험을 보다 세분화하여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험특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Hsu, et al., 2017). 이는 기존연구들이 창업경험을 성공 또는 실패로 구분하지 않고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습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창업가와 벤처창업기업의 의사결정과 창업과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성공경험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Paik, 2014)이나 실패경험과 실패학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Boso et al., 2019)과 같이 창업경험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경험 중에서 실패에 따른 회복과 재창업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Cope, 2011). 많은 창업기업들은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실패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업가의 감정상태 이해, 실패로부터의 극복 및 재기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hepherd & Cardon, 2009; Shepherd & Haynie, 2011). 실패에 대한 심리 및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실패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업을 재도전하거나 재기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Yamakawa & Cardon, 2015; Yamakawa, et al, 2015).

창업가의 창업경험은 과거 창업과정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창업경험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창업초기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성과에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창업경험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

벤처창업초기 기업들은 제한된 내부자원과 축적된 조직역량 부족으로 인해 창업가의 역량과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창업가의 경험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창업가는 과거 창업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창업경험을 통해 창업초기 회사의 설립과 기회추구를 포함한 창업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Delmar & Shane, 2006; Reuber & Fisher, 1999).

창업경험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 창업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신규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다. 창업초기 필요자금 확보, 신규 인력의 채용, 신제품 개발, 잠재 고객 만남 및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Aldrich, 1999)에 대한 이전 경험들을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초기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초기에는 회사설립 뿐만 아니라 신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장개척에 이르기까지 여러 활동들을 동시에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창업가 본인의 제한된 시간과 초기 자원을 배분하는데 창업경험이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활용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둘째, 창업경험은 이전 창업과정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정보원천과 외부 자원제공자에 대한 선별과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Westhead et al., 2005a; Zhang, 2011). 창업초기 사업기회의 개발과 추구를 위해 다양한 정보원천으로부터 가치있는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자신이 추구하는 기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창업초기 내부적으로 부족한 자원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투자자금, 정책자금, 기술, 시장개척 및 해외진출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자원 제공자들이 존재하나 유용한 외부자원의 종류와 자원제공자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창업경험은 이러한 다양한 외부 자원들의 제공내용과 범위 및 활용조건에 대한 이해, 자원제공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 및 자원내용과 제공자별 활용 유용성을 높임으로써 외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창업경험은 과거 창업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Adams, et al, 2016; Campbell, 1992; Milanov & Fernhaber, 2009). 창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가들은 처음으로 창업하는 창업가들에 비해 이전 창업경험을 통해 형성된 기존 고객, 공급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사업을 통해 형성된 고객이나 공급자 및 파트너들이 후속 창업기업에서도 동일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네트워크 형태로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창업경험에 의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

창업경험을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경우에도 각각의 창업경험들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rup, 2005).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는 창업가들은 자신의 과거 사업들을 통해 얻게 된 경험과 지식을 새로운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Toft-Kehler et al., 2014). 또한 이전 사업의 성공에 따라 형성된 창업가에 대한 성공 이미지나 명성은 외부 자원제공자들에게 추가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자원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Zhang, 2011). 기존 사업추진과정에서 형성된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유용한 정보나 협력을 활용함으로써 후속 창업시에도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전 창업에서 실패경험을 보유한 창업가도 후속 창업시에는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전 사업의 실패로부터 학습(learning from failure)을 통해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후속 창업시 활용함으로써 유사한 시행착오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Boso et al., 2019). 외부 자원의 활용이나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에 있어서도 성공에 유용한 네트워크나 정보원천들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에 미치는 중요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자원 활용과정에

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미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들은 반복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창업가의 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 1-1: 창업가의 성공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 1-2: 창업가의 실패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2.3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

신생 벤처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직내부의 자원이나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창업가의 지식과 역량 및 경험특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Stinchcombe, 1965). 특히, 창업초기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운영에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전 창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가는 이전 창업경험이 없는 창업가들에 비해 다양한 사업관련 경험과 지식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창업초기 회사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다 쉽게 극복하고 사업기회 추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Westhead et al., 2005a; 2005b). 창업이후 벤처창업기업들이 어느정도 조직화를 구성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충원이나 부서 설립 등을 통해 창업가 1인 기업이 아닌 여러 조직구성원들이 함께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성장 과정에서 벤처창업기업들은 창업초기의 불안정하고 혼돈스러운 조직운영방식을 벗어나 보다 조직차원의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조직차원의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Kazanjian, 1988).

벤처창업기업의 성장과정에 따라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업내부의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가의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Delmar & Shane(2006)는 스웨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효과와 업력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가의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창업이후 벤처창업기업들은 기업운영 과정을 통해 기업자체의 독자적인 경험과 내부지식을 축적 가능하므로 업력이 지남에 따라 창업가의 초기 창업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지식과

경험은 벤처창업기업의 내부 경험과 지식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초기에는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창업가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사업이 지속되어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신규인력들이 충원되고 조직내 프로세스가 정착되면서 창업가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의 영향은 감소할 수 있다(Churchill & Lewis, 1983). 또한 벤처창업기업들은 사업기회 추구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인력들이 증가하면서 조직화 과정과 구성원간 역할분화가 진행되면서 창업가의 경험 기여도는 점차 약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창업초기 특성이 기업의 성장이후에 오랜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각인효과(imprinting effects)로 인해 창업초기 특성이 이후 성과 및 조직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Boeker, 1989; Eisenhardt & Schoonhoven, 1990; Milanov & Fernhaber, 2009; Mathias, et al, 2015). 이는 창업초기 창업가의 창업경험 효과는 이후 조직내 의사결정과 조직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히려 업력이 증가하면서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창업가의 초기 조직운영이나 사업기회 추구방식에 대한 일관되게 추진하거나 창업경험을 통해 확인된 지식과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인력을 충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가의 창업경험이나 초기특성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Beckman & Burton, 2008).

본 연구에서는 창업초기 특성의 각인효과와 중요성과 영향효과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이 증가하면서 창업가의 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가가 회사의 설립자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가의 특성이 벤처창업기업 기회포착에서부터 외부자원조달 및 조직화의 전과정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나 설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창업가의 역할이 창업초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벤처창업기업의 설립과 성장과정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가의 경험특성이 벤처창업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국내 창업가의 영향력은 성공과 실패경험 각각의 경험 모두에서 업력이 증가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전의 성공적 창업경험에서는 성공의 노하우나 지식 및 네트워크를 재활용하고 하는 형태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 창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 및 성공을 위한 지식과 학습을 통해 성공을 추구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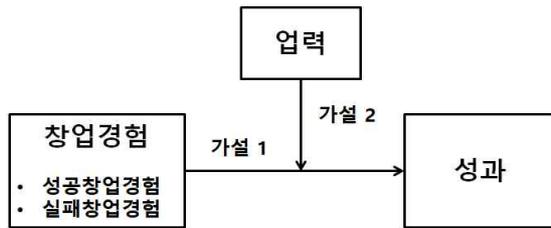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 창업가의 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정의 영

향관계는 업력이 증가할수록 강화될 것이다.

- 2-1: 창업가의 성공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정의 영향관계는 업력이 증가할수록 강화될 것이다.
- 2-2: 창업가의 실패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정의 영향관계는 업력이 증가할수록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론

3.1 연구표본

본 연구를 위한 연구표본은 2013년 벤처기업정밀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벤처기업정밀조사는 매년 국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2천여개 기업들을 층화표본추출하여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업현황과 특성들에 대한 자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본자료에 포함된 총 2,069개 자료 중에서 업력 7년 이하이고 2012년 매출액이 0이상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응답값들이 충실한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업력기준으로 7년 이하인 기업은 총 1,137개 기업이며 이중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응답값이 미흡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077개 벤처창업기업들을 연구표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표본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업력에서는 3년이하 368개(34.2%), 4~5년 374개(34.7%) 및 6~7년 335개(31.1%)로 구성되어 있다. 업종에서는 제조업 739개(68.6%)와 비제조업 338개(31.4%), 창업자 성별에서는 남성이 창업한 기업 1001개(92.9%)인 반면 여성이 창업한 기업은 76개(7.1%)로 나타났다. 창업가의 창업당시 연령대는 20대 31명(2.9%), 30대 359명(33.3%), 40대 509명(47.3%), 50대 163명(15.1%), 60대 이상은 15명(1.4%)이다.

3.2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측정은 쉽지 않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상이한 성과변수들과 다양한 측정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Brush &

Vanderwerf, 1992; Coad, 2009; Read,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기존 창업가의 창업특성과 성과간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성과변수를 활용하여 매출액규모, 인당매출액 및 종업원 수와 같은 규모변수를 성과로 측정하였다 (Delmar & Shane, 2006; Eesley & Roberts, 2012; Toft-Kehler et al., 2014; 김인수·이택구, 2018; 배영임, 2014). 벤처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성공적인 기회추구의 결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매출액규모, 인당매출액 및 고용규모는 모든 벤처창업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업종의 벤처창업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업들의 2012년 기준 매출액규모, 인당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성과로 측정하였다. 모든 성과변수들은 2012년말 기준의 값에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성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벤처창업기업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 특성이다. 창업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창업경험 유무(Dencker et al. 2009; 윤보현·박준병, 2007), 창업경험 횟수(Stuart & Abetti, 1990; Eesley & Roberts, 2012; 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배영임, 2014)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대부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시 창업자의 자기응답식이 대부분이며(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윤보현·박준병, 2007; 배영임, 2014), 일부 2차 자료를 활용한 창업경험(Paik, 2014)에 대한 측정도 시도되고 있다. 창업경험은 현재 회사의 창업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한 회사수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Stuart & Abetti, 1990; Eesley & Roberts, 2012; 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창업가들은 창업에 대한 기대치나 목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Cassar, 2007), 특정 재무적 성과(매출액 등)는 업종에 따른 차이가 크고 특정 활동(기업공개, M&A)은 업종특성과 창업자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객관적인 성공 또는 실패의 기준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서를 활용한 기존연구들과서와 같이 창업자의 자기응답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전 창업경험은 현재 벤처창업기업 설립이전에 전체창업경험 총합(총 창업기업 수), 성공창업경험 개수(성공한 창업기업 수), 실패창업경험 개수(실패한 창업기업 수)를 측정하였다. 전체창업경험 총합 값의 분포가 특정 값들로 치우쳐있음을 고려하여 전체창업경험 변수들은 모두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으로 측정하였다(Delmar & Shane, 2006; Toft-Kehler et al., 2014). 또한 과거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각 변수값에 1을 합산한 후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창업경험 개수와 창업경험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성공창업경험과 실패창업경험의 갯수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성공창업경험과 실패창업경험의 변수도 전체창업경험 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절변수는 기업업력으로 측정하였다(Delmar & Shane, 2006). 기업업력은 해당 벤처창업기업의 설립이후부터 2012년 연말까지 운영연도로 측정하였다. 기업업력의 조절 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변수는 두 변수간 곱의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창업경험의 세가지 독립변수들과 상호작용변수 값을 계산하였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가능성을 고려

하여, 기업업력 변수를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하고 이를 독립변수들과 곱한 값을 상호작용변수 값으로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식에도 평균중심화된 기업업력 변수와 이를 이용한 상호작용변수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주요 변수 기초통계 및 상관계수

	기초통계		상관계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창업가 성별	1.07	0.26	1												
2.창업가 연령대	2.79	0.78	-.05 *	1											
3.창업가 이공계 여부	0.61	0.49	-.20 **	-.06 **	1										
4.창업가 산업근무연수	12.15	6.48	-.13 ***	.53 ***	.03	1									
5.공동창업여부	0.12	0.32	.03	-.01	.05	.01	1								
6.기술력	3.32	1.01	.04	-.05 *	.02	.02	-.01	1							
7.업력	3.76	1.82	-.02	-.02	-.05	-.03	.00	-.05	1						
8.전체창업경험 (ln값)	0.18	0.37	-.05	.16 ***	-.06 **	.08 ***	-.01	-.08 ***	-.00	1					
9.성공창업경험 (ln값)	0.13	0.30	-.02	.16 ***	-.05	.10 ***	-.03	-.07 **	.00	.83 ***	1				
10.실패창업경험 (ln값)	0.06	0.23	-.05 *	.06 **	-.03	.01	.04	-.05 *	-.02	.63 ***	.11 ***	1			
11.매출액 (ln값)	11.36	1.75	-.03	.06 **	-.08 **	.06 **	-.05	.04	.35 ***	-.04	.04	-.13 ***	1		
12.인당매출액 (ln값)	9.09	1.39	-.02	.02	-.04	.05	-.07 **	.05	.27 ***	-.07 **	-.01	-.13 ***	.88***	1	
13.종업원수 (ln값)	2.27	0.85	-.02	.10 ***	-.08 ***	.06 *	.01	-.00	.28 ***	.04	.09 ***	-.06 **	.59***	.14 ***	1

* p<.1, ** p<.05, *** p<.01

<표 2> 매출액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표본 (N=1077)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통제 변수	창업가 성별	-.005	-.009	-.007	-.011
	창업가 연령대	.031	.028	.033	.028
	창업가 이공계여부	-.049	-.049	-.045	-.046
	창업가 산업근무연	.047	.041	.044	.039
	공동창업여부	-.057 **	-.050 *	-.057 **	-.051 *
	기술력	.090 ***	.090 ***	.086 ***	.088 ***
	업력	.347 ***	.345 ***	.317 ***	.320 ***
독립 변수	전체창업경험	-.064**		-.066 **	
	성공창업경험		.026		.029
	실패창업경험		-.135***		-.133 ***
조절 효과	전체창업경험X업력			.066 **	
	성공창업경험X업력				.015
	실패창업경험X업력				.074 **
R 제곱값		.209	.223	.213	.228
수정 R 제곱값		.172	.185	.174	.189
F값		5.550***	5.887***	5.540***	5.814***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이며 업종(2수준) 더미변수 계수는 생략함
* p<.1, ** p<.05, *** p<.01

<표 3> 인당매출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표본 (N=1077)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통제 변수	창업가 성별	-.012	-.015	-.014	-.017
	창업가 연령대	-.013	-.015	-.011	-.014
	창업가 이공계여부	-.010	-.009	-.006	-.006
	창업가 산업근무연	.045	.040	.043	.039
	공동창업여부	-.081 ***	-.075 ***	-.081 ***	-.076 ***
	기술력	.106 ***	.106 ***	.103***	.104 ***
	업력	.262 ***	.260 ***	.234***	.236 ***
독립 변수	전체창업경험	-.090***		-.092***	
	성공창업경험		-.012		-.011
	실패창업경험		-.126***		-.123 ***
조절 효과	전체창업경험X업력			.062 *	
	성공창업경험X업력				.022
	실패창업경험X업력				.059 *
R 제곱값		.167	.175	.170	.179
수정 R 제곱값		.127	.135	.129	.137
F값		4.205***	4.354***	4.201***	4.281***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이며 업종(2수준) 더미변수 계수는 생략함
* p<.1, ** p<.05, *** p<.01

<표 4> 고용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표본 (N=1077)			
		모형9	모형10	모형11	모형12
통제 변수	창업가 성별	.009	.005	.008	.004
	창업가 연령대	.082 **	.080 **	.083 **	.080 **
	창업가 이공계여부	-.083 **	-.083 ***	-.080 **	-.081 **
	창업가 산업근무년	.026	.021	.024	.021
	공동창업여부	.021	.026	.020	.025
	기술력	.011	.011	.008	.011
	업력	.281 ***	.279 ***	.263 ***	.265 ***
독립 변수	전체창업경험	.013		.011	
	성공창업경험		.072 **		.075 **
	실패창업경험		-.075 **		-.074 **
조절 효과	전체창업경험X업력			.039	
	성공창업경험X업력				-.001
	실패창업경험X업력				.058 *
R 제곱값		.148	.156	.148	.159
수정 R 제곱값		.107	.115	.107	.116
F값		3.622 ***	3.801 ***	3.578 ***	3.726 ***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이며 업종(2수준) 더미변수 계수는 생략함
* p<.1, ** p<.05, *** p<.01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창업가 특성과 벤처창업기업 특성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벤처창업기업 창업가 특성으로는 창업가의 성별을 측정하였으며, 남성인 경우에는 1의 값을, 여성인 경우에는 2의 값을 부여하였다. 창업가의 창업당시 연령대를 측정하였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총 5개 구간(20대=1, 60대=5)으로 구분하고 측정하였다. 창업가의 학부시절 이공계전공인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또한 창업가의 관련 산업경력수준은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력 년수로 측정하였다. 벤처창업기업의 공동창업인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고 단독창업인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벤처창업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 기업의 기술력 수준으로 세계 유일기술,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거의 100%수준), 약간 미흡(80% ~ 99%수준), 미흡(60% ~ 80%수준), 경쟁열세(60% 이하수준)의 5단계 수준으로 구분하고 세계 유일기술 수준인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경쟁열세 수준인 경우에는 5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업종특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중분류(2 Digit) 단위의 업종분류를 더미변수로 측정하고 각각의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및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IV. 분석결과

4.1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 분석

통제변수들과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력의 경우에는 모든 성과변수와 정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창업여부는 매출액과 인당매출액에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가 연령대는 고용과 정의 영향관계를 보이며 창업가 이공계전공여부는 고용규모와 부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벤처창업기업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2>에서 <표 4>와 같다. 전체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창업경험이 매출액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1과 같이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064, p<.05$)를 보이고 있으며, 인당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5와 같이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090, p<.01$)를 보이는 반면, 종업원수인 고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1을 기각하고 있다.

창업경험을 성공과 실패로 세분화하였을 때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성공창업경험은 고용규모(모형10)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072, p<.05$)를 보이는 반면, 매출액규모(모형2)과 인당매출액(모형6)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창업가의 성공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1-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실패창업경험은 매출액 규모(모형2)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135, p<.01$), 인당매출액(모형6)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126, p<.01$) 및 고용규모(모형10)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075, p<.05$)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창업가의 실패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1-2을 기각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창업가의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는 창업경험의 유형과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따라 다른 영향관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전 창업경험의 성패여부와 관계없는 전체창업경험은 매출액과 인당매출액과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고용규모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체창업경험의 효과는 창업경험의 세분화된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고용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들의 전체창업경험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성공창업경험의 긍정적인 효과와 실패창업경험의 부정적인 효과가 상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다. 매출액과 인당매출액에 있어서는 전체창업경험과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공창업경험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재한 상태에서 실패창업경험의 부정적인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경험을 성공창업경험과 실패창업경험으로 구분할 경우, 각각의 창업경험 특성은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와 서로 다른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성공창업경험은 고용성과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는 반면,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매출액이나 인당매출액에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실패창업경험은 모든 성과변수와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중에서 성공창업경험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창업가는 이전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존 성공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자신의 성공경험과 지식에 대한 과신과 집착함으로써(Denrell, 2003; Shepherd, et al, 2003; Rerup, 2005), 새로운 사업에서 요구되는 핵심성공요인과의 차이로 인해 기존 성공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지식과 경험들의 효과가 새로 창업한 사업이나 업종에서는 가치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과거 성공에 대한 기존지식들이나 경험에 대한 의존이나 이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의 문제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하는 경향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지나친 단순화, 제한적 추론이나 감각에 의존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신규 지식을 획득하고 학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Miller, 1993; Rerup, 2005).

반면, 실패창업경험 효과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과거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경험으로부터 후속 사업추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정보 및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다(Rerup, 2005). 둘째, 과거 실패에 대한 분석과 학습이 부족하여 실패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간주하고 타 업종을 변경하여 기존의 실패판행들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실패가 지속될 수 있다(Eggers & Song, 2015). 셋째, 본 연구에서 재무적 성과변수는 규모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가들은 재창업시 다소 보수적이거나 규모확대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무적 성과규모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국내 사회적 또는 제도적 환경이 실패한 창업가들에 대해 후호적이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창업가들이 재창업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4.2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 분석

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2>에서 <표 4>와 같다. 전체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력의 조

절효과는 매출액규모(모형3)에 대해서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0.066, p<.05$), 인당매출액(모형7)에 대해서도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062, p<.1$)를 보이는 반면, 고용(모형1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 성과간의 관계가 업력에 따라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창업경험을 성공과 실패로 세분화하였을 때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성공창업경험과 매출액규모(모형4), 인당매출액(모형8) 및 고용규모(모형12)의 관계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는 모든 성과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창업가의 성공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관계가 업력에 따라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 2-1을 기각하고 결과이다. 반면, 실패창업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는 매출액규모(모형4)에 대해서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074, p<.05$), 인당매출액(모형8)에 대해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059, p<.01$) 및 고용규모(모형12)에 대해서도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058, p<.01$)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가의 실패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관계가 업력에 따라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 2-2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창업가의 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업력의 조절효과도 창업경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는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의 영향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효과는 성과변수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매출액과 인당매출액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강화되고 있으나 고용성과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조절효과는 창업경험의 세부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공창업경험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실패창업경험에 대해서는 매출액, 인당매출액 및 고용성과 모두에서 조절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업력에 의한 조절효과가 과거 창업경험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의 조절효과가 창업경험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창업가의 과거성공경험과 업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과거 성공경험에 대해 과신에 의한 의존으로, 창업한 신규사업분야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학습을 소홀히 함으로써 업력증가에 따른 경험축적이나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존경험과 새롭게 학습한 지식들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Denrell, 2003; Shepherd et al., 2003; Rerup, 2005). 성공경험을 갖춘 창업가의 과거 지식이나 경험이 새로운 학습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과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함으로써 업력증가에 따른 학습효과나 지식창출이 미흡하여 성과에 대한 기여가 낮을 수 있다(Zahra &

George, 2002).

반면, 실패경험의 경우에는 과거 실패과정이나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신규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이 지나면서 여러 의사결정 상황에 반영됨으로써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과거 실패경험이 많은 창업자들은 성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업운영방식이나 경쟁행위들에 대해 시도하고 학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향의 시도와 학습을 사업초기에는 자원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업력이 지나고 여러 시행착오과정속에서 사업분야에 적합한 방식을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Rerup, 2005).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업력의 조절효과는 정의 영향으로 업력이 증가하면서 창업경험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Delmar & Shane, 2006)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은 창업이후에도 실질적인 창업가-대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경영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전 창업 경험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업가의 과거 창업경험과 벤처창업기업 성과의 관계는 단순히 창업경험 그 자체보다는 성공 또는 실패와 같은 창업경험의 세부적인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의 창업가들이 과거 창업경험들이 후속 창업시에 창업 초기 중요한 인적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창업경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공창업경험은 매출액이나 인당매출액과 같은 재무적 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용에 있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패창업경험은 재무적 성과에 단기적으로는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업력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창업경험 특성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연구결과이며 향후 성공 또는 실패경험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관계가 성과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창업경험의 경우에서도 성과변수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향후 이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업력의 조절효과는 창업경험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국내 벤처기업 창업가들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창업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을 그 자체로 중요한 지식과 경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성공과 실패경험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나 배제가 아닌 각자으로부터의 경험과 지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경우, 기존 지식과 경험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는 새로운 사업환경에 필요한 지식과 학습에 대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통합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업력증가에 따른 경험과 학습이 창업가 개인이 아닌 조직차원의 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창업한 기업차원의 지식과 학습을 통해 조직역량으로 체계화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창업경험에 따른 특성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창업경험 보유 여부나 유형별 창업경험 보유여부 이상으로 해당 창업경험을 통해 어떤 학습과정과 새로운 창업환경에서의 적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즉, 창업경험을 갖고 있는 재창업자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재창업 지원의 효과는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패경험 창업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경험을 갖춘 재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시에는 최초 창업자 대비 보다 시간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정책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재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창업경험 특성별로 성과변수별 영향관계가 달라지고 있음은 재창업자 지원을 통해 고용에서 매출증대와 같이 여러 성과변수를 동시에 높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책목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창업경험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창업가들의 이전 창업경험의 부정적인 직접효과는 연쇄창업가들이 최초창업가들에 비해 보다 유리한 초기 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패한 창업가들의 재창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실패한 창업가들이 획득한 창업경험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시 활용하여 재창업 과정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나 본 연구 결과는 이와는 반대로 실패경험은 오히려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보다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창업경험의 구체적 특성과 정교한 측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창업가의 회고에 의한 측정으로 인해 이전 경험에 대한 기억

의존적 문제, 창업경험의 시기,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등과 같은 창업경험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과거 창업경험에 대한 업종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창업업종의 연속성 여부나 이전 창업과 현재 사업간의 기술, 고객 및 비즈니스 유사성 등과 같은 창업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소들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셋째, 업력을 제한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창업경험 효과가 기업의 업력구간에 따른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업력의 비선형 관계와 같이 다양한 영향관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성과변수는 재무적 규모 관점의 성과변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장성이나 수익 및 생존여부와 같은 보다 다양한 성과변수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가의 실제 창업경험이 없더라도 이전 기업이나 조직내에서 사내창업이나 사내기업가정신 활동과 같은 유사 창업경험이나 신규 프로젝트 수행과 같은 활동 및 경험들과 실제 창업경험의 효과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여 국내 벤처창업기업에 있어서 창업가의 창업경험특성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김민수·황보윤·김홍(2010). 창업보육기업의 창업자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5(2), 33-57.
- 김인수·이택구(2018). 신용문제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13(2), 15-26.
- 김형호·윤현덕(2015).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제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벤처창업연구*, 10(6), 235-252.
- 배영임(2014).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13-22.
- 윤보현·박준병(2007). 벤처창업기업 경영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2(3), 145-168.
- 이종건·김현철·안태향(2014). 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 창업지향성과 창업경험의 역할. *경영학연구*, 43(2), 561-586.
- Adams, P., Fontana, R., & Malerba, F.(2016). User-industry spinouts: Downstream industry knowledge as a source of new firm entry and survival. *Organization Science*, 27(1), 18-35.
- Aldrich, H.(1999). *Organizations Evolving*. London: Sage Publications
- Alsos, G. A., & Carter, S.(2006). Multiple business ownership in the Norwegian farm sector: Resource transfer and performance consequences. *Journal of Rural Studies*, 22(3), 313-322.
- Bae, Y. I.(2014). Performance Drivers of Entrepreneurial Restar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3), 13-22.
- Beckman, C. M., & Burton, M. D.(2008). Founding the future: Path dependence in the evolution of top management teams from founding to IPO. *Organization Science*, 19(1), 3-24.
- Boeker, W.(1989). Strategic change: The effects of founding and histo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3), 489-515.
- Boso, N., Adeleye, I., Donbesuur, F., & Gyensare, M.(2019). Do entrepreneurs always benefit from business failure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8, 370-379.
- Brush, C. G., & Vanderwerf, P. A.(1992). A comparison of methods and sources for obtaining estimate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2), 157-170.
- Campbell, C. A.(1992). A decision theory model for entrepreneurial act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7(1), 21-27.
- Cassar, G.(2007). Money, money, money?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entrepreneur career reasons, growth preferences and achieved growth.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1), 89-107.
- Churchill, N., & Lewis, V.(1983). The Five Stages of Small Firm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53, 43-54.
- Coad, A. (2009). *The growth of firms: A survey of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Edward Elgar Publishing.
- Cope, J.(2011). Entrepreneurial learning from failure: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6), 604-623.
- Delmar, F., & Shane, S.(2006). Does experience matter? The effect of founding team experience on the survival and sales of newly founded ventures. *Strategic Organization*, 4(3), 215-247.
- Dencker, J. C., Gruber, M., & Shah, S. K.(2009). Pre-entry knowledge, learning, and the survival of new firms. *Organization Science*, 20(3), 516-537.
- Denrell, J. (2003). Vicarious learning, undersampling of failure and the myth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Science*, 14, 227-243.
- Eesley, C. E., & Roberts, E. B.(2012). Are you experienced or are you talented?: When does innate talent versus experience explai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6(3), 207-219.
- Eggers, J. P., & Song, L.(2015). Dealing with failure: Serial entrepreneurs and the costs of changing industries between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8(6), 1785-1803.
- Eisenhardt, K. M., & Schoonhoven, C. B.(1990). Organizational growth: Linking founding team, strategy, environment, and growth among US semiconductor ventures, 1978-1988.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04-529.
- Hsu, D. K., Wiklund, J., & Cotton, R. D.(2017). Succ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Reentry: An Experimental Assessment of the Veracity of Self-Efficacy and Prospect Theor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19-47.
- Kazanjian, R. K.(1988). Relation of dominant problems to stages of growth in technology-based new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2), 257-279.
- Kim, H. H., & Yoon, H. D.(2015).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start up Support system for Failed Businessma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 Entrepreneurship*, 10(6), 15-26.
- Kim, I. S. & Lee, T. K.(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Re-startup Firm's Performance by the Condition of Credit Proble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2), 235-252.
- Kim, M. S., Hwangbo, Y., & Kim, B.(2010). A Study on Influence to Business performance of business incubator company via CEO's Characteristic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5(2), 33-57.
- Lee, J. K., Kim, H. C. & Ahn, T.(2014). Self-Efficacy and Firm Performance: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Experience. *Korean Management Review*, 43(2), 561-586.
- Mathias, B. D., Williams, D. W., & Smith, A. R.(2015). Entrepreneurial inception: The role of imprinting in entrepreneurial ac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0(1), 11-28.
- MacMillan, I.(1986). To really learn about entrepreneurship, let's study habitual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241.
- Milanov, H., & Fernhaber, S. A.(2009). The impact of early imprinting on the evolution of new venture network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1), 46-61.
- Miller, D. (1993). The architecture of simplic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 116-138.
- Oe, A., & Mitsuhashi, H.(2013). Founders' experiences for startups' fast break-eve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6(11), 2193-2201.
- Paik, Y.(2014). Serial entrepreneurs and venture survival: Evidence from US venture-capital-financed semiconductor firms.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8(3), 254-268.
- Politis, D.(2008). Does prior start-up experience matter for entrepreneurs' learning? A comparison between novice and habitual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3), 472-489.
- Read, S., Song, M., & Smit, W.(2009). A meta-analytic review of effectuation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6), 573-587.
- Rerup, C.(2005). Learning from past experience: Footnotes on mindfulness and habitual entrepreneurship. *Scandinavian Journal of Management*, 21(4), 451-472.
- Reuber, A. R., & Fischer, E.(1999). 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of founders' experie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7(2), 30-45.
- Shepherd, D. A., & Cardon, M. S.(2009). Negative emotional reactions to project failure and the self-compassion to learn from the experie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6(6), 923-949.
- Shepherd, D. A., & Haynie, J. M.(2011). Venture failure, stigma, and impression management: A self-verification, self-determination view.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5(2), 178-197.
- Shepherd, D. A., Zacharakis, A., & Baron, R. A.(2003). VCs' decision process: Evidence suggesting more experience may not always be bett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381-401.
- Stinchcombe, A. L.(1965) 'So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s', in J. G. March (ed.) *Handbook of Organizations*. 142-93. Chicago, IL: Rand MacNally.
- Stuart, R. W., & Abetti, P. A.(1990). Impact of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experience on early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3), 151-162.
- Toft-Kehler, R., Wennberg, K., & Kim, P. H.(2014). Practice makes perfect: Entrepreneurial-experience curv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4), 453-470.
- Tornikoski, E. T., & Newbert, S. L.(2007).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emergence: A legitimacy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2), 311-335.
- Westhead, P., & Wright, M.(1998). Novice, portfolio, and serial founders: are they differ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3), 173-204.
- Westhead, P., Ucbasaran, D., & Wright, M.(2005a). Decisions, actions, and performance: do novice, serial, and portfolio entrepreneurs differ?.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3(4), 393-417.
- Westhead, P., Ucbasaran, D., Wright, M., & Binks, M. (2005b). Novice, serial and portfolio entrepreneur behaviour and contribut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25(2), 109-132.
- Yamakawa, Y., & Cardon, M. S.(2015). Causal ascriptions and perceived learning from entrepreneurial failure. *Small Business Economics*, 44(4), 797-820.
- Yamakawa, Y., Peng, M. W., & Deeds, D. L.(2015). Rising from the ashes: Cognitive determinants of venture growth after entrepreneurial fail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9(2), 209-236.
- Yoon, B. H., & Park, J. B.(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and CEO's Characteristic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3), 145-168.
- Zahra, S. A., & George, G. (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185-203.
- Zhang, J.(2011). The advantage of experienced start-up founders in venture capital acquisition: evidence from serial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Economics*, 36(2), 187-208.
- Zhang, L.(2018). Founders Matter! Serial Entrepreneurs and Venture Capital Syndicate Form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042258718758641

Success and Failur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New Venture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of Firm Age*

Sangmoon Park**

Meesoon Lee***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ri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new venture performance. Entrepreneurial experience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early development processes of new ventures founded by experienced entrepreneurs. There are inconclusive resul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new venture performance. Based on the data of Korean new venture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 these relationships of different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new venture performance. Success experience has positive effects on employment but no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Failure experience has negative relationships with financial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ment. There are moderating effect of firm age on the relationship of only failure experience with performance.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new ventures' development and performances.

KeyWords: Entrepreneurial Experience, Success, Failure, New Venture, Performanc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7 Research Grant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No. 520170100)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venture@kangwon.ac.kr

*** Co-Author, Research Fellow,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KOSBI), mslee@kosbi.re.kr